

# 신규 실업수당 청구,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직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10월 셋째 주(11일~1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8만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주 84만2천 건에서 5만5천 건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지난 3월 둘째 주 28만2천 건 이후 최저치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7만 건을 크게 밑돈 결과이기도 하다.

이날 발표는 미 고용시장의 점진적 회복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이 많지만,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통계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N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가 각 주에서 최대 26주 지급하는 정규 실업수당을 모두 소진한 실업자가 많아진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연방정부가 추가로 13주 동안 지급하는 '팬데믹 긴급실업수당' (PEUC) 청구 건수는 지난 9월 27일~10월 3일 기준 51만 건 급증한 330만 건으로 집계됐다. 또 기존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는 독립 계약



▲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사진=shutterstock

자나 각 근로자(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팬데믹 실업보조' (PUA) 신규 청구 역시 전주보다 34만5천 건 증가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경제전문가인 케시 보스탄직은 뉴욕타임스에 "청구 건수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실업자를 위한 재정 지원의 부족이 소비자 태도와 소비 지출을 압박할 것"이라며 "지원금에 의존하는 가계들에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미치기 전인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21만~22만 건 수준이었다.

# 미국인, 한국 호감도 역대 최고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 외교분야 여론조사기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60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60점은 1978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첫 조사에서는 47점이었으나 꾸준히 상승해 60점대에 처음 진입한 것이다. 2010년에는 52점, 2018년엔 56점 수준이었다. CCGA 측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K팝 인기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CCGA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지난 7월부터 19일까지 미 전역 성인 2111명을 상대로 각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다.

미국이 한국과 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8%로 2017년 53%보다 크게 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이후 여론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지원했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19점으로 종전보다 더 낮아졌다. 북한은 첫 조사가 이뤄진

1994년에 34점이었고 이후 20~30점대에 주로 머물다가 이번엔 10점대로 추락했다.

최근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자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중대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은 51%로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7년에는 75%를 기록한 바 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군이 방어에 동참해야 하는냐는 질문에는 58%가 긍정 답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32점으로 역대 최저치였지만, 일본은 65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부상을 중대 위협으로 느낀다는 응답자는 55%로 지난해 42%보다 늘었다.

한편 한국인들이 미국에 느끼는 호감도는 최근 급락했으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 77%였으나 올해 59%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13개 동맹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답변률도 77%로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13개 동맹국에서 미국에 대한 평균 호감도는 34%에 그쳤다.

##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띠별 운세

10월 26일 ~ 11월 1일, 2020년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 易學 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p>남자 길일 : 28, 29, 1</p>  <p><b>쥐</b></p> <p>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적자가 있었다면 만회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협력자나 윗사람을 가까이하면 더욱 순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전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교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전○ 애정△ 건강○</p>	<p>여자 길일 : 26, 27, 30, 31</p>  <p><b>말</b></p> <p>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면 예상 밖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처세하여야 합니다. 낡은 것보다는 새롭고 참신한 것에 뜻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뜻이 맞는 세 사람이 동업하여 이익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래에서는 먼저 상대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주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 애정○ 건강△</p>
 <p><b>소</b></p> <p>높은 산이 비바람을 맞는 격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스스로의 실력 향상에 주력하고 내부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흐트러진 심신을 바로잡고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법. 경솔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 애정○ 건강○</p>	 <p><b>양</b></p> <p>순종에 뜻이 없습니다. 짐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되는 전환기로서, 물위에 바람이 불어오듯이 상쾌한 기분으로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고 마음속의 근심에서도 벗어납니다. 작은 일보다는 큰일, 낡은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건설한 마음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금전○ 애정△ 건강○</p>
 <p><b>범</b></p> <p>산 아래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험한 것이 놓여 있으니, 길이 막혀 뚫어지는 형국입니다. 확실한 전망을 세우기가 곤란하므로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계몽을 받아야 하듯이, 훌륭한 선배나 윗사람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자와 힘을 합쳐 나간다면 뜻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금전△ 애정○ 건강○</p>	 <p><b>원숭이</b></p> <p>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것과 같은 불리한 상황에 빠져도, 유순하게 윗사람을 따르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행동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예절을 지키고 바른 길을 걸어야 길합니다. 정해진 순서를 밟아 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나치게 앞장을 서거나 모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실패가 없도록 깊이 살피며, 조심성 있게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금전○ 애정△ 건강○</p>
 <p><b>토끼</b></p> <p>전등이 사방에 진동하듯이, 패기와 활기가 넘치는 운세입니다. 따라서 뜻을 세워 노력하면 순조롭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등이 소리만 크고 실속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목표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벌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너무 거창하고 일이 분산되면, 도리어 실의를 얻기 힘들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금전△ 애정○ 건강○</p>	 <p><b>닭</b></p> <p>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모습으로서, 꾸준히 노력이 요구되는 운세입니다. 혹,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분을 지키고 견실하게 노력하면 복록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넓은 아량으로 덕(德)을 베풀어야 합니다. 금전○ 애정○ 건강△</p>
 <p><b>염</b></p> <p>길흉이 상반하니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뒤에는 태평해지는 운세입니다. 무리하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힘 쓰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계획하는 일은 앞뒤를 잘 살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끔은 복잡한 업무를 떠나 조용한 즐거움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소인배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금전○ 애정○ 건강△</p>	 <p><b>개</b></p> <p>옹이 맑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악을 멀리하며 선을 추구하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바로잡고, 앞으로는 올바른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태평하겠지만, 내심으로는 갈등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은 몸을 기르는 근본이니, 특히 음식과 언행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금전△ 애정○ 건강○</p>
 <p><b>돼지</b></p> <p>좋은 때를 만났으니 스스로의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확고하게 계획을 세우면 아랫사람은 불안 없이 그를 따라 행동하게 되듯이, 뜻하는 일을 미리 준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면 앞길은 탄탄대로입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주변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움직이면 더욱 좋습니다. 금전○ 애정○ 건강△</p>	 <p><b>돼지</b></p> <p>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시 돌아온 격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유망한 사업을 발견한다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운세가 아직은 썩 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먼 곳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전○ 애정△ 건강○</p>